여수에 '근로자 건강센터' 연내 들어선다

올 노동부 공모서 도내 첫 선정
직업병 상담·예방 등 의료서비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운영을 지원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올해 여수시에 들어선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건강센터는 광주를 비롯해 인천 남동, 안산 시화, 대구, 창원, 서울 구로, 성남, 천안, 울산, 부천 등 10곳에 설치돼 있다. 올해 설치예정지로 여수를 비롯해 부산, 구미, 대전, 경기 남부(미확정) 등이 최종 선정됐다. 2014년 공모에서 전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여수지역이 선정됐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직업병과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동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역 근로자들은 ▲직업병 관련 건강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예방 ▲작업 관련 뇌심혈관 질환 예방 ▲근무환경과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건강장애 상담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올해 사업으로 5곳에 2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각 사업장에 약 4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곤(민주·여수 갑) 의원은 "지난해 대림산업 폭발사고 이후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확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노동부 측을 수차례 접촉하고 여수시에 사업추진을 요구한 결과 근로자 건강센터를 여수에 유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 건강센터가 설치되면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역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양매화축제 기간 광주~다압 버스 운행
금호고속, 하루 6회

금호고속(대표 김성산)이 2014 광양 국제 매화문화축제 기간 중 관람객 편의를 위해 광주와 광양, 다압(행사장)을 잇는 직통버스를 운행한다.

버스는 광양 국제 매화 문화축제이 끝나는 30일까지 하루 6회씩 운행되며 광주 출발시간은 오전 8시 40분, 9시 40분, 10시 30분, 11시 30분, 오후 12시 30분, 2시 10분이다. 소요시간은 광주에서 광양까지 1시간 20분, 다압까지 2시간이 걸린다. 다압발 광주행 버스는 오전 11시 50분, 오후 12시 40분, 오후 1시 40분, 3시 10분, 4시 10분, 5시 50분에 출발한다.

버스 티켓은 현지 매표소 및 금호고속 홈페이지(www.kumhobuslines.c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광주발 다압행 9700원, 광양발 다압행이 3100원이다. 문의(062-360-85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양 매화동산 표지석 제막식

광양시는 지난 21일 시청앞 시민광장내에 매화동산을 조성하고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 매화동산은 광양시 매실연구 김순모 회장, 매화마을 김태문, 광양매실농장 김충현, 수향농원 이형재, 이천조경 강남원 대표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의 헌수로 조성됐다. 〈광양시 제공〉

'순천 시립 추모공원' 내달 문열어
봉안함 6천기·화장로 5기 등 자연친화적 최첨단 시설 갖춰

순천시에 자연친화적 최첨단 장례시설인 '순천 시립 추모공원'이 다음달 문을 연다. 〈사진〉

순천시는 현대화된 장사 시설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모든 공사와 시운전을 마치고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립 추모공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1981년부터 운영해 온 '연화원' 시설이 오래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데다 최근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했다.

이번에 완공한 시립 추모공원은 순천시 야흥동 일원 부지 4만800㎡에 국비 총 174억원(국비 63억·도비 13억·시비 9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장장과 봉안당, 유택동산, 화장로 5기, 봉안함 6000기 등의 시설을 갖췄다.

또 고별실을 비롯해 개별 분향실, 대기실, 매점, 카페 등의 내부 편의시설과 함께 214대의 대규모 주차장, 휴식마당, 건강마당 등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

이용료는 순천시민 기준으로 ▲화장 5만8000원 ▲봉안(15년) 18만원 ▲유택동산 1만원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립 추모공원 개장으로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묘지로 말미암은 국토훼손이 줄어들고 자연환경 보호에 이바지해 자연과 하나되는 선진 장례문화 정착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예정열·김은종기자 ejkim@

한려대 교수들 '학교 살리기' 나서
비전 선포식·급여 기부

한려대학교(총장 서복영) 교수와 교직원들이 개교 20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비전 선포식과 동참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발전과 위기 탈출을 위해 급여 일부를 기부하자는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신준수 기획처장은 한려대 발전비전 선포식에서 지방 사립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학내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교육투자 확대, 제도 정비 등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재단도 적극적인 학교투자와 지원을 약속하며 대학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

귀농·귀촌 학교 고창, 본격 운영
옛 신왕초교 리모델링
교육생 이론·실습 병행

고창군이 귀농·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귀농·귀촌학교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고창군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패밀리(Family) 5563 정착 프로그램'에 선정돼 3년간(2013~2015년) 국비 10억44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공음면 신대리에 자리한 옛 신왕 초등학교(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 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말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

이곳에서 교육생들은 전문가 강의를 바탕으로 이론을 익히면서 인근 군유지 2만3760㎡ 규모의 공동 작업장에서 실습을 하고, 전자상 거래망을 구축해 유통을 통한 수익창출 기법도 배운다. 또 귀농·귀촌 학교는 문화 동아리방이나 지역주민과 교류장소 등 다기능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군은 지난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3년까지 5680명이 고창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군은 2013 대한민국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서 귀농·귀촌 최우수 지자체상을 2년 연속 수상하고, 201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귀농·귀촌 도시부문 대상을 받는 등 귀농·귀촌 일반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며 내장산 국립공원 기슭에 봄 야생화들이 피어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붉은대극, 산자고, 현호색.〈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내장산에 '야생화 관찰로' 만든다
탐방지원센터~내장사 2.5㎞ 구간
내달 착공… 사계절 관광명소 기대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무(無)장애 야생화 관찰로를 조성한다.

42억원을 들여 내장산 탐방지원센터에서 내장사까지 2.5㎞ 구간 3만5000㎡에 야생화 관찰로를 만든다.

오는 4월 착공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다. 공원에는 내장산에 자생하는 야생화와 꽃나무를 주로 심을 방침이다.

우선 봄에 꽃을 피우는 철쭉, 조팝나무와 여름철 꽃인 꽃무릇, 백양꽃, 배롱나무 등을 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남녀노소, 장애인·비장애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평지에 공원을 만들고 점자 블록이나 음성안내 시스템 같은 편의시설도 갖춘다. 공원 조성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이나 단체가 야생화를 기증해 심고 직접 일정한 면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을 만들면 다양한 볼거리가 생겨 봄과 여름에도 많은 탐방객을 불러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장산은 전국적인 단풍 명소로 탐방객 80%가 가을에 몰리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서윤석 소장은 "내장산 국립공원은 5300여 종의 동·식물이 있는 자연생태계 보고(寶庫)"라며 "이런 가치를 살려 사계절 관광 명소로 만들고 탐방객을 더욱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편백·철쭉 등 3만그루 무료로 드려요"
서부 지방산림청 나무 나누어주기

서부 지방산림청은 제69회 식목일을 앞두고 내 나무 갖기 운동의 하나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벌인다.

수종은 국민이 선호하는 편백, 철쭉, 감나무, 매실나무, 야생화, 유실수 등 3만 그루며, 1인당 3그루씩 1만여명에게 나누어 준다.

관리소별 행사 일정은 ▲25일 지방청(남원 춘향테마파크) ▲26일 무주관리소(무주읍 반딧불 전통시장) ▲28일 영암관리소(광주시 풍암 호수공원) ▲4월 2일 순천관리소(순천역 광장), 경남 함양관리소(함양읍 상림공원) 등이다.

이현복 서부 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행사는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인기가 많아서 준비한 나무가 조기에 품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부 지방산림청 나무 나누어 주기 일정

기관별	날짜	장소
지방청	3월 25일	남원시(춘향테마파크)
무주	3월 26일	무주읍 반딧불 전통시장
영암	3월 28일	광주시 풍암 호수공원
순천	4월 2일	순천시 순천역 광장

이와 함께 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등 5개 국유림관리소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국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5개소 6.5㏊에 1만220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정읍 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일원 2㏊에 감나무 등 특용수를 심으며, 영암 국유림관리소는 4월 4일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야산 1㏊에 3000그루의 헛개나무를 식재한다.

또한 순천 국유림관리소는 4월 4일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고동산 경제림단지 1㏊에 편백나무 3000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단신

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 서포터즈 모집

(재)전주 국제영화제(JIFF) 조직위원회는 4월 2일까지 영화제를 후원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지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지프 서포터즈'는 2만원 이상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jiff.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입시 혜택은 영화표 할인(온라인·현장 모두 적용)과 매진작 입석표 구매, 지프 서포터즈 쉼터 '서포터즈 라운지' 이용, 영화제 기념품 10% 할인, 영화제 정보지 제공, 공식 관객숙소 '사랑방' 우선 예약 등이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새만금 국제 마라톤대회 내달 13일 열려

2014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대회가 4월 13일 오전 8시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초청·등록 선수들이 참가하는 엘리트 부문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마스터스 부문이 함께 시행된다. 마스터스 부문은 풀코스, 10㎞, 5㎞ 등 세 가지 코스로 나뉜다.

2시간 7분 43초의 기록을 가진 에디오피아 비루 게메츠 우쿠(36)를 비롯해 7개 국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한다. 행사장에선 사랑의 쌀 기부 달리기, 베스트 드레서상 선정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군산=박금석기자 · 전북취재본부장

내장산국립공원-정읍경찰서, 착한운전 실천 협약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와 정읍경찰서는 착한 운전을 위한 무사고·무위반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제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이행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누적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서윤석 소장은 "선진교통 문화를 지키는데 국립공원 직원들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정읍경찰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전북대, 친환경 발효미생물 육성 협약

순창군과 전북대학교는 지난 20일 전북대 산학 협력단실에서 건강·친환경 발효미생물 산업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대는 순창군에 발효미생물 거점센터인 전북대 RIC(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단) 분소를 설치해 발효관련 우수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대는 보유중인 5억원 규모 이상의 다양한 발효미생물 관련 설비를 순창군 발효 미생물관리센터에 설치해 기업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